

| 설교노트 "말하게 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2:36-42)

오순절 성령강림 직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한 사람이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50일 전,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천 명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난 것은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침묵하던 자가 말하고, 주저앉았던 자가 일어서고, 어부가 설교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요엘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인용한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이었습니다. 어부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26) 참고에 없는 것은 꺼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얹은 수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성령이 바로 그 순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성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이성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7절처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렸습니다." '찢리다'는 신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로, '완전히 꿰뚫다'는 뜻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찢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찢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선포했을 뿐이고, 마음을 찢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이 찢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번 주도 성령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 가시길 축원합니다.

| 묵상질문

1.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침묵을 깨고 말씀을 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2.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려면 먼저 '입력'이 돼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나요?
3.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찢린 부분이 있다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Since 1975

2026년 5월 31일

2026 VISION

“Remain Rejoice”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중 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한어)	수 7:00PM / 본당
수요예배(영어)	수 7:00PM / 안디옥
어와나(영아/유치부)	수 7:00PM / 나사렛
어와나(유년부)	수 7:00PM / 베들레헴
Youth 모임	금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모임	수 6:00PM / YAM Room
한글학교	토 9:30AM / 각교실
새벽예배(한어)	화 - 토 6:00AM / 본당
새벽예배(영어)	화 - 토 6:00AM / N-117
화요일 QT모임	10:00AM / E-102

주일 예배

장년 한어예배 1부	7:30AM / 본당
영어예배 2부	9:30AM / 본당
장년 한어예배 3부	11:10AM / 본당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청소년/영어청년	11:00AM / 안디옥
사랑부예배(장매인)	11:00AM / O-19
	1:30PM / 베들레헴
한어청년모임	1:00PM(매주일) / N-208
한어청년예배	1:30PM(마지막주일) / 본당
주일QT모임(남성)	9:30AM / E-203 & E-208
주일QT모임(여성)	8:40AM / N-208
	9:30AM / E-101 & E-212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WWW.TFBC.ORG TFBC002@GMAIL.COM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444

* 경배와찬양	1부: 1부 찬양팀 / 3부: 3부 찬양팀
대 표 기 도	1부: 인숙탱 집사 / 3부: 한광훈 집사
봉 헌 찬 양	1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3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봉 헌 기 도	송경원 담임목사
교 회 소 식	송경원 담임목사
*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36-42
말 씀 선 포	“말하게 하시는 성령” 송경원 담임목사
* 축 도	송경원 담임목사

* 표는 일어나 주세요.

수 요 예 배		예 배 위 원	
경배와찬양	수요찬양팀	이	1부: 인숙탱 집사
대 표 기 도	왕순이 집사	번	3부: 한광훈 집사
성 경 봉 독	에스라 7:1-10	주	수요: 왕순이 집사
말 씀 선 포	“성경인물 이야기: 에스라” 송경원 담임목사	다	1부: 권태운 은퇴안수집사
		음	3부: 이종덕 안수집사
		주	수요: 오옥희 집사

드러진 예물		
십일조	감사	일반
지정	리셋프로젝트	M52

중보기도	Prayer List
- 백주아, 미영웰맨, 엄기추, 경희 프레스터, 인자킹, 옥진 홀튼, 김지현, 양승심, 영자 라버츠, 선애 머레이, 박순덕,영희 펠링, 천영한, 이희진, 엔젤라 프레이터, 오세규, 박지영, 이제나. - Carl Elliot, Paul Wong, William Dungey, Tom Bayliss, Ken Adkins, William Ellis, Rick Dollar, Wilbur Moore.	

환영: 예배에 참석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팀의 안내를 받아, 준비된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6월 모임 및 행사 안내: (1) TFBC 찬양대/찬양팀 봄 야유회: 6/6(토), 오전 8시-오후 5시, American Lake Park Shelter #2 (2) VBS Prayer Walk: 6/6 (토) 오전 7시 30분, 본당 로비 앞 (3) 밀알 콘서트: 6/7(주일) 오후 5시, 본당 (4) 목자/목녀 모임: 6/13(토), 6/27(토) 오전 7:30, 안디옥 성전 (5) 선교회 월례회: 6/14(주일), 3부 예배 후 (6) 타코마연합부흥성회: 오후 7시, 강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6/17 타코마중앙장로교회, *6/18 타코마제일침례교회, 6/19 타코마새생명교회 KCM(한어 청년부)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가 들려집니다 2026 여름성경학교 (VBS) ※ 일시/주제: 6/24(수)-27(토) ILLUMINATION STATION (요 8:12) ※ 대상/회비: 3.5세~6학년/회비 없음 ※ VBS 자원봉사자 모집중: 로비 신청서 및 QR코드 등록 ※ VBS 팀 리더 훈련: 5/31(오늘) 오후 1시, 안디옥 성전 (문의: 윤재환 전도사) 2026년 단기선교: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한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열매가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나나이모: 7/27-8/3, 2) 일본: 8/24-9/2, 3) 마다가스카르: 9/24-10/2 ※ 나나이모 선교팀 미팅: 5/31(오늘), 오후 1:30, 안디옥 성전 학생부 여름 수련회 일시/장소: 7/6(월)-9(목) / Cascades Camp, Yelm. ※ 신청: 로비. (5/31까지 \$140, 이후 \$150 / 둘째부터 \$10 할인) 선교회 주관 “Garage Sale”: 7/15(수) - 7/18(토)에 있습니다. ※ 물품 정리 봉사자 모집 7/14(화) 오전 9시 시작 주일오찬 주방봉사: 5/31: 네팔 A 목장 (미나리베라), 네팔 B 목장 (김수현), 6/7 우크라이나 목장 (박경미), 태국 목장 (강성필) 양육훈련 전도훈련(5/17-6/7) 주일 오후 1:30, 새가족 환영실, ※ 대상: 새가족 클래스 수료자 제자훈련(진행중) 의자걸기 캠페인 은혜로운 교제 후, 사용하신 의자는 접어서 의자 거치대에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이름표 캠페인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위해 5월 31일(오늘)부터 6월 28일(주일)까지 이름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더욱 따뜻한 교제를 나눴보세요! 행정사역 생명의 삶 6월호: \$5/권당, 사무실	
--	--